

13호, 2019년 6월

서울숲 지킴이들의 훈훈한 이야기



서울숲컨서번시



서울숲 14주년 생일주간
6월 13일 - 6월 18일

서울숲 다시보기

숲속놀이터 모래소독

공기정화식물전

식물번식 프로그램

오늘의 꽃_꽃양귀비

이 달의 이슈

양치식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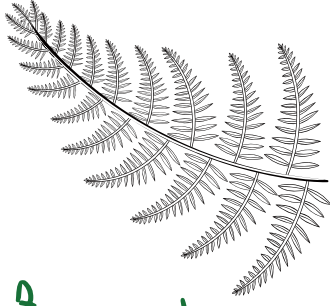
서울숲 그린피크닉

김해에서 왔어요!



서울숲

양치식물 이야기



양치식물(pteridophyte)이란 꽃이 피지 않으며 종자가 없고, 잎 뒤에 붙은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을 말합니다. 잎의 모양이 치아처럼 갈라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우리가 식용으로 애용하는 고사리 또한 양치식물의 일종입니다. 양치식물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로, 현재까지도 진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굉장히 다양해서 열대와 아열대지방을 중심으로 현재 약 2만 종 정도가 분포하고 있어요. 서울숲에는 어떤 양치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고사리 잎 뒷면의 포자

고사리의 번식

고사리는 잎의 뒷면에 작은 알갱이처럼 포자가 생기며, 포자가 땅에 떨어져 어린 배우체를 만들고 그 배우체가 성장하여 작은 뿌리를 만들어 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알갱이들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자용 뿌리인 '종근'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뿌리를 통해 번식을 시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종근은 길다란 형태의 줄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디와 중간부위, 끝부분에는 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근을 심고 45-60일경이면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말려서 나오는 고사리의 새순



낙줄고사리

Davallia mariesii

낙줄고사리는 뿌리호흡이 용이하도록 공기가 잘 통하는 서식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오염된 공기는 견디지 못하지만, 건조한 환경에서는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기 중에 노출된 뿌리줄기에서 수분을 덜 빼앗기도록 회갈색 비늘조각이 밀생합니다. 비늘조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장자리에 털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낙줄고사리가 험한 환경에서도 여러해살이로 살아남는 까닭입니다.

보스턴고사리

Nephrolepis exaltata 'Bostoniensis'

곤충식물원 2층에 위치한 보스턴고사리는 부드럽고 습도가 높은 숲이나 습지에서 서식하며 실내재배 시 봄과 가을에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바르게 자라고 잎의 색도 진해집니다. 주로 습한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잎 끝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떨어집니다. 또한 증산작용이 뛰어나고 포름알데히드 제거능력이 높아 담배연기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더피고사리

Nephrolepis cordifolia 'Duffii'

곤충식물원 1층에서 볼 수 있는 더피고사리는 습한 것을 좋아하는 양치류로 늘 신선한 물로 산소가 필요하므로 생장기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잎 끝이 상하며, 한번 마르면 회복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철 청량감을 주는 외형으로 그린인테리어로 많이 활용되며 추위에 비교적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김해에서 400km 달려 서울숲에 왔어요!



경상남도 김해 봉명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4명의 친구들이 새벽부터 비행기를 타고 서울숲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좌) 서울+숲 공기정화식물전 관람 (우) 서울숲공원에 대한 소개 후 공원을 둘러보기 전 모습

지난 5월 14일, 서울숲공원에 4명의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김해 봉명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이지환, 김태양, 진상운, 정대준 학생입니다. 봉명중학교는 학생들이 주도로 교육과 운영을 이끌어가는 경남형 혁신학교로 선정된 '행복학교'입니다. 이번 학기에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주제로 수학여행을 계획하던 중 서울숲의 생태보전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서울숲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서울숲을 조성하게 된 계기, 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종류, 서울숲이 서울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서울숲에 살고있는 동물에게 시민들이 먹이를 주는 행위 등 몇가지 질문을 사전에 준비해왔습니다. 이에 서울숲컨서번시 박양미 매니저는 "건물로 뻗뻗한 도심 한복판에서 서울숲은 서울의 허파와도 같은 소중한 공간이다.", "서울숲에서는 다양한 식물 뿐 아니라 꽃사슴, 토끼, 나비 등 다양한 동물도 만나볼 수 있다." 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학교 건물 뒷편에 농작물을 키우는 텃밭은 물론 사슴, 나비, 토끼를 보는 것이 흔한 일상인 김해 친구들에게 동식물들을 보기 위해 공원까지 직접 찾아가

야 한다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문답 시간이 끝난 후 서울숲 지도를 펼쳤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숲공원 투어 코스는 커뮤니티센터 - 사슴우리 - 곤충식물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서울숲을 탐방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관심분야의 주제를 찾아 떠나는 수학여행. 이번 서울숲공원으로의 견학이 학생들의 진로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 수변호수 앞 기념사진

일회용품 OUT!
서울숲

GREEN PICNIC

우리나라의 연간 일회용품 컵 사용량은 무려 260억개.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봄철에는 야외에서 여유롭게 음료를 마시거나 도시락을 먹는 경우가 많죠. 이에 따라 서울숲에서의 일회용품 사용량과 쓰레기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쓰레기봉투를 구매하는 값만 무려 1,000만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공간, '도시락정원'은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도시락과 텀블러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친환경 그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락앤락과 아름다운가게가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가족마당 살

구나무 옆에 조성된 도시락정원은 '일회용품OUT' 존으로 지정되었고, 곳곳에는 친환경 메시지를 새겨 깨끗한 지구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에 서울숲컨서번시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즐거운 피크닉을 마친 후에는 깔끔한 뒷정리까지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번 주말, 일회용품보다는 재사용 도시락과 텀블러, 물병을 가지고 서울숲으로 그린 피크닉(Green Picnic)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배달음식 NO!



일회용 컵 안쓰기!

빨대는 이제 빨대

일회용플라스틱 없는 서울숲 동참 인증샷





곤충식물원 공기정화식물SHOW



커뮤니티센터 서울+숨 개관식

미세먼지가 걱정이라면? 서울숲 공기정화식물전

지구 산소의 20%이상을 생성하는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이듯 15만평의 공원이 조성되어있는 서울숲은 서울의 허파입니다. 도심에서 서울숲은 우리가 크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식물은 광합성, 증산작용, 토양 내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즘, 일상생활에서 식물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을 공기정화식물 특별전시를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곤충식물원에서는 요정마을, 미미꽃집 등 흥미로운 테마의 포토존과 함께 식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커뮤니티센터 전시에서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월 버튼 박사님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기 생활공간에 어울리는 공기정화 식물을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화요일엔 #오늘의 꽃 꽃양귀비 VS 마약성 양귀비

5월 중순이 되면, 서울숲 사과나무길 언덕은 꽃양귀비의 붉은빛으로 가득차입니다. 아름다운 만큼 치명적인 마약 성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양귀비.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양귀비를 키우는 것은 불법이라 하는데요, 그렇다면 길가나 공원에서 우리가 보는 양귀비는 뭘까요? 이는 마약성분이 없는 원예용 꽃양귀비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보면 분명히 다른 두 양귀비의 구분법을 알아볼까요?



5월 14일 사과나무길 언덕의 꽃양귀비

〈마약성 양귀비〉		〈원예용 양귀비〉
숨털 없이 매끈	꽃대	숨털로 덮여 있음
잎이 넓고 톱니 모양	잎	잎이 가늘고 깃털 모양
잎,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	진액	진액 없음

식물번식 프로그램

식물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

‘식물번식’은 4월 파종(씨뿌리기)부터, 11월 구근(알뿌리)심기까지 계절별 시기에 맞는 식물 관리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 16일 초화류 씨뿌리기에 이어 5월 21일은 커버린 식물을 더 큰 집으로 옮겨주는 분주(포기 나누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육묘 전문가 김동혁 팀장님의 분주 방법에 대한 이론 수업 후 리아트리스, 노루오줌, 톨풀을 직접 큰 화분에 옮겨 심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물번식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이용객들의 관람이 제한되어있는 ‘서울숲 육묘장’에서 곧 공원 화단에 식재될 식물들을 먼저 만나보는 것 또한 특별한 경험입니다. 식물번식 프로그램은 11월까지 계속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16일 파종(씨뿌리기) 수업



5월 21일 분주(포기 나누기) 수업



전문업체를 통한 고온 스팀 살균 소독



5월 9일 불암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모래소독 자원봉사활동 모습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숲 어린이 놀이터 모래소독

서울숲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내 모래놀이터에 대한 살균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연 5회, 권장 횟수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를 통한 살균 소독 뿐만 아니라 모래 뒤집기를 통한 일광소독 작업도 상시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래 뒤집기는 표면 아래에 있는 흙을 위로 뒤집어 햇빛을 쬐줌으로써 모래를 소독하는 원리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불암고등학교에서 숲속놀이터 모래 뒤집기 활동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하다가 힘들면 미끄러움 한 번 타고 와서 충전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삼질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다음엔 봉사활동 말고 놀러오고 싶다.” 등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넘치는 말과 함께 숲속 놀이터 모래 소독 활동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정기프로그램]
주말엔 숲으로

[이야기가 있는 서울숲]

일시 매주 토요일
10:30~11:30 / 14:00~15:00
대상 누구나 (사전 예약 및 현장참여)
내용 서울숲 직원에게 듣는 서울숲의 역사와 공간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가족생태나들이]

일시 매주 일요일
10:30~12:00 / 14:00~15:30
대상 누구나 (사전 예약 및 현장참여)
내용 한국숲해설가협회 해설가와 함께하는 서울숲의 식물이야기



[프로그램]
마녀의초대장 정원을 부탁해!

일시 4~6월, 매월 3주 토요일
11:00 ~ 13:00
대상 가족 20명 (8세 이상)
장소 커뮤니티센터
내용 마녀정원에 꽃을 피워요
(6/15 마녀정원에 화단 만들기)
참가비 1인 1만원
신청 서울숲컨서번시 홈페이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프로그램]
꿀벌 대소동

일시 4~6월, 3,4주 토요일
10:30 ~ 11:30
대상 누구나
장소 꿀벌정원
내용 꿀벌정원에서 자연물을 활용한 나만의 미니꿀벌, 꿀벌 음수대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참여

**6월 18일, 14번째 생일을 맞은
서울숲 생일파티에 초대합니다!**

생일 주간 : 6월 13일(목) - 6월 18일(화)

- * 특별한 사연을 가진 팀을 위한 전문사진작가의 스냅사진 촬영
- * 서울숲과 같은 월(6월)에 태어난 친구들과의 숲속 생일 파티
- * 서울숲을 방문한 618명에게 초록 선물
- * 서울숲 플라스틱 줍줍
- * 공원 내 신청곡 이벤트
- * 서울숲 특별투어



바다문수 가동시간 안내

운영기간 : 5~9월

미가동 요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분수 가동)

운영시간 :

- 5, 6, 9월 : 13시 / 14시 / 15시 / 16시 (총 4회)

- 7, 8월 : 12시 / 13시 / 14시 / 15시 / 16시 (총 5회)

